

몽골 고원의 유목 전통과 현실

- 유목민, 가축, 목영지를 중심으로* -

유 원 수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 몽골고원의 유목전통

동서로 대흥안령산맥에서 알타이 산맥, 남북으로 만리장성에서 바이칼 호수 사이에 펼쳐진 드넓은 고장은 유목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터전이다. 러시아연방, 몽골, 중국에 걸쳐 있는 이 지역을 우리는 보통 몽골고원이라고 부른다. 춥고 메마른 기후와 토양으로 인해 곡식 생산이 거의 불가능했던 이 지역에서는 건조초원을 활용하는 목축의 특수한 형태가 일찍부터 주민들의 식량산업이자 생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¹⁾ 몽골고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6). 이 논문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가 인문한국(HK) 사업의 일환으로 “초원변경과 열대변경의 사회구조 비교”라는 주제 하에 개최한 “동남아 변경지역의 사회적 구성” 연구클러스터 초청강연회 및 월례 워크숍에서 『몽골초원의 유목 사회구조: 전통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4월 26일 발표한

주제어: 몽골고원의 유목, 유목민, 5종 가축, 목영지, 유목의 현실
Seasonal nomadism of the Mongolian plateau, nomads, five sorts of livestock, pasture, present situation of nomadism

원 곳곳에 퍼져 있는 바위그림에도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이 들짐승을 사냥하고, 길들여 목축을 생업으로 삼게 되는 과정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2004: 104, 166)를 비롯한 몽골의 연구자들은 대개 중석기시대부터(7천~1만5천 년 전) 가축을 기르는 일이 비롯되어 대략 3,500~3,000년 전에는 유목이 지배 산업이 되었다고 본다. 가축은 오랜 세월을 걸쳐 양, 염소, 소, 말, 낙타 다섯 가지로 굳어졌고, 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계절의 변화와 물, 풀의 형편에 따라 온 가족이 가축을 데리고, 집과 세간까지 모두 가지고 옮겨 다니는 계절유목의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이 초원 위에 제국을 건설하고 남쪽 이웃 중국과 적대적 혹은 우호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던 흉노(匈奴), 선비(鮮卑), 유연(柔然, 402~552), 튀르크(突厥, 552~745), 위구르(回紇, 745~840) 모두 유목민이었고, 위구르를 몰아낸 키르기스(840~920), 키르기스를 몰아낸 거란(契丹), 이어 300여 년에 걸친 초원의 피비린내 나는 무질서와 혼란을 몰아내고 유라시아 대륙을 석권한 몽골(1206~현재) 역시 유목민들이었다.²⁾ 이렇게 몽골고원 주민들의 생업으로 자리 잡게 된 유

내용을 논문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1) 유목, 기상, 기후, 지리, 토양, 식생 등을 비롯한 몽골 관련 다양한 자료와 연구는 대개 몽골어로 되어 있으나 몽골 및 세계의 기관, 전문가들이 인터넷에 올린 영어 자료와 연구도 풍부하고, 한국어 자료와 연구 역시 부족하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몽골 관련 한국어 학술 논문은 주로 한국몽골학회의 『몽골학』(1-32호), 한국중앙아시아학회의 『중앙아시아연구』(1-16호), 한국알타이학회의 『알타이학보』(1-21호) 등에 게재된다. 세계기상기구자료에 의하면 1971~2000년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의 연평균 강수량은 270.4 mm,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은 1,344.2 mm이었다고 한다. 울란바타르의 연중 강수량이 서울의 7월(327.9 mm), 8월(348.0 mm) 한 달 강수량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이 자료에서도 울란바타르에서 일 최저기온 평균이 영상을 유지하는 것은 5~9월까지 단 5개월뿐이고(서울 3~11월까지 9개월), 일 최고기온 평균이 최고에 달하는 7월(21.8도)은 서울의 5월(22.8도)이나 9월(25.6도)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도시 모두 자기 나라의 유목과 농경을 대표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몽골고원과 한반도의 평균적~대표적 기후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 여긴다.
- 2) 이들이 유목민이었음을 알려주는 漢籍 자료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무수히 많다. 일

목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몽골고원 주민들의 의식주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해 왔다. 유목은 몽골인의 행동양식, 나아가 사고방식과 정서, 사회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온 것이다.



<그림 1> 몽골어 사용인구, 즉 몽골계 민족의 분포. 바깥 선은 13세기 몽골제국 시대의 판도. 짙은 색으로 표시된 가장 넓은 부분은 몽골계 민족의 분포가 집중된 곳, 나아가 몽골계 민족의 본고장이 어디인지를 보여준다 하겠다. 위키피디아에서 인용.

레오 『사기』 흉노열전(史記卷百一十·匈奴列傳第五十)의 다음과 같은 기사도 흉노가 명백하게 유목민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굵은 글자와 해석은 글쓴이), 匈奴(흉노는), 其先祖夏后氏之苗裔也, 曰淳維。唐虞以上有山戎 獫狁 葷粥, 居于北蠻(북만의 지역에 살며), 隨畜牧而轉移(가축을 따라 옮겨다닌다). 其畜之所多則馬 牛 羊(그 가축 중 많은 것은 말, 소, 양이며), 其奇畜則橐駝 驘 羸 駃騠 騊駼 逐水草遷徙(물과 풀을 따라 이사다닌다), 毋城郭常處耕田之業(성곽과 일정한 거처, 농경업이 없고), 然亦各有分地。毋文書, 以言語爲約束。兒能騎羊, 引弓射鳥鼠, 少長則射狐兔, 用爲食。士力能毋弓, 盡爲甲騎。其俗, 寬則隨畜, 因射獵禽獸爲生業(명화시에는 가축을 따라 다니고, 금수를 사냥하여 생업을 삼으며), 急則人習戰攻以侵伐, 其天性也。其長兵則弓矢, 短兵則刀鋌。利則進, 不利則退, 不羞遁走。苟利所在, 不知禮義。自君王以下, 咸食畜肉, 衣其皮革, 被旃裘(임금 이하 모두 가축의 고기를 먹고 옷은 그 피혁이며, 모전과 털가죽을 입는다). 壯者食肥美, 老者食其餘。貴壯健, 賤老弱。父死, 妻其后母, 兄弟死, 皆取其妻妾之。其俗有名不諱, 而無姓字。…(下略)… 한편 유목민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자로 자신의 이야기를 남긴 것으로 가장 오래된 자료는 튀르크 비문이다. 이용성(2008)을 통해 탈라트 테킨이 밝힌 3대 튀르크 비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들 민족들의 통사에 대해서는 김호동 외(1998)가 옮긴 그루셰의 『유라시아 유목제국사』를 참고할 수 있음.

다양한 산업과 직업이 등장하게 된 21세기의 몽골에서도 유목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몽골국 식량, 농목, 경공업부(2012a)에 의하면 2010년 몽골국 국내총생산의 15.9%, 수출의 12.5%, 고용의 33.5%를 목축이 부담하였다고 한다. 또한 몽골국통계청(2012: 53) 자료에 의하면 몽골 가구의 45.2%가 아직도 계절유목의 필수 요소인 이동식 주거 게르(ger)에 살고 있는 점, 또한 유원수(1997), 이안나(2005: 67-72, 145-148), 유원수(2009a: 204-218) 등에 의하면 유제품과 고기가 몽골인의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이고, 델(debel, deel)을 비롯한 전통 의상이 도시의 몽골인들에게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으며, 말달리기, 씨름, 활쏘기로 이루어지는 나담(nayadam, naadam) 축제가 범국가적 규모로 거행되는 점 등을 생각할 때 몽골고원의 3나라 중 적어도 몽골국에서는 유목 전통이 아직도 중요한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겠다.



<그림 2> 울란바타르의 이흐 텡게린 암. 테두리 안의 작은 원들은 많은 가축, 목축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여 가축증식에 성공한 단계에 그렸지만 청동기~초기철기 시대로 추정된다. 테두리 밑의 그림은 두 사람이 말로 보이는 가축을 다루고 있는 듯. 하단을 지나는 티베트글자는 훨씬 후대에, 원래의 바위그림 위에 덧 쓰인 것. (서울대 HK문명아카이브. 2009년 7월). 그림의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는 체웬도르지 외(1999: 42-43)를 참고.

필자는 몽골고원의 유목 전통과 유목민의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몽골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첫걸음이고, 중앙아시아 문명 연구의 출발이라고 보아 이 글의 2장 각 절을 통해 몽골의 유목을 사람, 가축, 목영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부분인 3장에서는 유목, 나아가 유목사회가 처한 현실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 이 글에서 각 몽골어형은 내몽고대학(1999), 볼드 외(2008), 체레미소프(1951), 바르다예프 외(2004) 등을 참고하여 한글 혹은 라틴자로 전사하여 몽골문어, 할하, 부리아트, 칼미크어 형태의 순서로 제시한다. 별도의 언급 없이 두 종류의 형태만 나온 것은 몽골문어와 할하몽골어 형태이다.

2. 몽골 유목의 3대 요소에 대한 이해

2.1. 사람: 유목민과 유목조직

유목은 종류와 성별과 나이, 그에 따른 성질과 용도가 각기 다른 5가지 살아 숨 쉬는 가축을, 그것도 봄이면 눈과 모래 섞인 흙바람이 몰아치고 한겨울이면 보통 영하 30~40도까지 내려가는 인적 드문 초원에서 돌보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가축에 대한 관심과 애착, 그러한 관심과 애착의 결실을 보장할 성실성, 인내심, 기술, 지식, 경험, 강인함 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생업이고, 따라서 유목민은 그러한 요소들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유목민은 자신이 기르는 수백 마리 가축 하나하나의 상태를 낱알이 파악할 뿐 아니라 유목하는 지역의 풀의 종류와 형편, 즉 가축에게 이로운 식물과 해로운 식물의 분포와 성장 상태, 물 사정, 소금 흙(주로 Na_2CO_3)의 분포와 규모, 풍향, 지형지물 등에 대해 해박하다. 또한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강인한 생존력이 마

치 유전인자처럼 그 몸과 마음에 내재되어 있으며, 가축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루는 법, 어느 시기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통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몽골 유목민의 가축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느낄 수 있는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말 떼가 100마리가 되어도 탈 말을 찾지 못하고, 양 떼가 1,000마리가 되어도 잡아먹을 양을 찾지 못한다”는 할하몽골어 속담도 유목민의 그러한 애착을 드러내는 한 보기가 될 것이다.³⁾ 이밖에도 몽골어에서는 가축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이름이 각기 다르고, 가축의 종류에 따라 우는 소리, 심지어 배설물도 각기 다른 말로 표시하는데, 가축을 보는 유목민의 눈은 같은 짐승이라도 雌雄이나 나이에 따라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할하몽골어에서 염소, 양, 낙타의 똥을 호르골(horgol), 소의 똥을 아르갈(argal), 말의 똥을 호몰(homool)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에게 염소, 양, 낙타의 똥의 성상이나 용도가 비슷하면서 다른 가축의 똥과는 다른 공통된 특색이 있어 한데 묶을 수 있고, 소와 말의 똥은 그것대로 각기 특유의 성상과 용도가 있는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잠발도르지(1996: 11)는 말의 털빛을 분류하는 몽골어 용어만 해도 240개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 역시 가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진지한 관찰의 소산일 것이다.

몽골 유목민의 집 게르(ger)는 해체와 조립이 비교적 쉬운 이동식 주거인 8평 남짓의 모전 천막이자, 族外婚 관계의 부부가 자녀를 기르고 사는 가정이다. 이동식 주거라 해도 어디까지나 집이기 때문에 식구(ger büli, ger büil)가 그 안에서 함께 살 수가 있어야 하고, 추위와 더위를 피할

3) Aduu zuu hüreheer unah mor' oldohgüi, hon' myanga hüreheer alj ideh hon' oldohgüi. 볼드 외(2008: 44). 말이 100마리가 되어도 탈 말 한 마리를 정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말을 골라 타든 그 말이 힘들고 지칠까 안타깝기 때문이고, 양이 1,000마리가 되어도 잡아먹을 양 한 마리를 정하지 못하는 것은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아깝고 애처롭기 때문이다.

수 있어야 하고, 비바람과 눈보라, 흠바람을 견딜 수 있어야 했다. 게르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천 년을 노력하고 연구한 산물이다.⁴⁾

요즘 몽골 유목민의 게르에서는 출입문에서 보아 바로 맞은편이 가장 상석(qormai, hormoi)으로 이 구역에 대개 달라이 라마의 사진, 불상, 불화가 모셔지고 가족사진과 그 밖의 의미 있는 물건들이 배치된다. 게르의 주인(ger-ün ejen, geriin ezen)의 자리도 이 구역이며, 주인과 동급 이상의 남자 손님도 이 구역에 좌정하도록 안내된다. 문에서 보아 오른쪽은 여성, 왼쪽은 남성의 공간이며, 문에 가까울수록 어린 사람의 자리이다. 몽골 사람들이 남긴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자 문학, 민속학 자료인 『몽골비사(1240)』 165절에는 1,200년을 전후한 시기에도 몽골 사회에서 지위~신분이 높은 사람이 상석(qoyimar)에 앉아 문 쪽(ala'un)을 바라보고, 낮은 사람이 문 쪽에 앉아 상석 쪽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나온다. 214절에서 적선을 바라는 저지 행세의 카르길 시라가 테무진의 어머니의 게르에 들어가 (주인의 위치에서 보아) 바른쪽 침상의 문 쪽 끝에 앉고, 테무진의 충복 보로골의 아내 알타니가 왼쪽에 앉아 있었던 것 역시 성별과 지위에 따른 공간 배치의 내용이 오늘날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⁵⁾

4) 게르는 ① 나무로 짠 그물 모양의 벽체(qana, hana) 4장 이상, 서까래(uni, uni) 50개 이상 100여개, 지붕창 틀(toyono, toono), 기둥(bayana, bagana), 출입문(egüde, üüd), 바닥(šala, shal) 등을 조립해 몸체를 먼저 세우고, ② 벽체 곁에는 주로 양털을 다져 만든 모전(isegeci, esgii)을 치고 안쪽으로는 양탄자(kebis, hiws) 같은 것을 대기도 하여 바람도 막고 주인의 미적 욕구도 충족시키며, ③ 다시 주로 흰색 질긴 천(dabuu, dawuu)을 몸체 전체에 씌우고 튼튼한 끈(büselegür, büslüür)으로 단단히 묶는다. 출입문은 해가 뜨는 동~동남쪽을 향하고 지붕창은 환기와 채광을 위해 게르 정중앙 꼭대기에 내는데 둥근 동형 나무 창틀과 모전으로 만든 네모 덮개(erüke, örh)로 이루어진다. 덮개에 달린 긴 끈(oyosor, oosor)을 게르 밖에서 당겨 덮거나 벗김으로써 창을 여닫는다. 이렇게 세운 게르의 바닥 면적은 8평이 채 안 되는 것부터 거의 20평에 달하는 것까지 다양하며, 벽체 5장 짜리라면 요즘에는 재료의 상태에 따라 한국 돈으로 4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쯤 된다. 몽골 유목민의 주거 및 주거문화에 대해서는 유원수(2010)를 참조.

5) 유원수(2004: 129, 216, 390, 443-445) 등을 참조. 『몽골비사』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남의 게르에 들어갈 때는 무기가 될 만한 것은 절대 갖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서도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고 자기에겐 합당한 자리에 좌정한다. 게르에 접근하면 대개는 덩치 크고 사나운 몽골 개가 먼저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사납게 짖어대며 덤벼들려고 하기 때문에 주인 식구들은 낯선 사람의 접근을 미리 알 수 있고, 손님을 위해 개를 제어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유목민의 집이자 가정인 게르가 엄연한 질서 아래 있는, 침범당할 수 없는 공간~영역임을 상징한다 하겠다.



<그림 3> 게르의 내부. 호르모이 부분. 서까래, 기둥, 화덕이 보인다. 2004년 6월 우브르항가이 지역.

요즘 몽골 유목민들은 부모자식이나 형제자매와 같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보통 서넛 혹은 네댓 가구가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함께 유목한다. 물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과끼리, 또는 부유한 목민과

는 유원수(2004), 유원수(2009b) 등을 참조.

그에게 고용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같이 유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유목조직을 “호트아일”(qota ayil, hotail)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호트(가축 우리)를 공유하는 가정들’이라는 뜻인 듯하다.

한 가구당 가족 수나 호트아일과 같은 유목 조직의 가구의 수, 나아가 몽골 초원의 인구는 시대 상황과 지역 사정에 따라 달랐겠지만 정확하게 알 길은 없다.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 수가 적었으리라는 것, 따라서 오늘 이 상황이 몽골고원이 부담한 바 있는 사람과 가축의 최대치이리라는 것이다.⁶⁾ 몽골국통계청(2012)의 인구통계에 의하면 2010년 말 현재 몽골 내 총인구 2,647,545명, 2000년에 1 가구당 가족 수가 4.3명, 2010년에 3.6명이었다고 하니⁷⁾ 요즘 유목민의 게르에는 유목민 내외와 2명 정도의 자녀가, 호트아일에는 애어른해서 모두 10~2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어림할 수 있겠다. 같은 통계에 의하면 2000년의 이 나라 인구밀도가 1km² 당 1.5명이었다가 2010년에는 1.7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어찌 보면 광활한 초지를 요구하는 유목이 몽골고원에서 생업으로서 가능했던 것은 인구가 희박하였기 때문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⁸⁾

-
- 6) 몽골국통계청(2012)에 의하면 몽골국의 인구는 1918년에 647,500명이었고 1백만을 돌파한 것은 1962년, 2백만을 돌파한 것은 1988년이었고, 현재 인구는 2,754,685명(그중 107,000명 해외 거주)이라고 한다. 몽골국 인구가 증가 일로에 있다 하겠다. 『몽골비서』 202절에는 칭기스 칸이 몽골고원을 통일하고 유목민을 95천호로 나누어 조직하였다고 한다. 유원수(2004: 196-198).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 숫자인지는 알 수 없다. 한 호를 10명씩 잡아도 95,000에 불과하다.
- 7) 수도 울란바타르 평균이 3.7명이므로 도시와 초원의 차이는 요즘에는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8) 몽골인의 친족 용어, 나아가 가족 관계 등에 대해서는 류기선(1995)을 참조.



<그림 4> 조슬랑(여름살이 타)의 호트아일(ASK REAL 아카이브. 2005년 6월 흡스쿨)

호트아일의 남자들은 주로 가축의 새끼를 받고, 소, 말, 낙타와 같이 큰 가축을 집에서 떨어진 초지로 몰고 나가 풀을 뜯기거나 길들이고, 거세하고, 코뚜레를 끼우고, 도살하고, 도살한 짐승을 해체하고, 가죽을 벗기고, 낙인을 찍고, 나무를 하고, 나무를 패는 등 근력이 많이 요구되는 일을 한다. 여자들은 젖을 짜고, 유제품을 가공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등 집과 식구를 거두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고, 갓 태어난 어린 새끼를 게르 주변에서 돌보게 된다. 가축의 털을 깎고, 모전을 만드는 일은 남녀가 함께하는 작업이다. 유목민의 가정에서는 노인들도 가구나 유목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고,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의 아이들도 말을 타고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초지로 양과 염소 떼를 몰고 나가 돌보고, 마른 소똥을 모아 들인다. 따라서 호트아일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유목 관련 기술과 유목에 대한 태도를 배우는 학습장이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배우는 놀이터이기도 하다.

『몽골비사(1240)』에는 형 도와 소코르와 아우 도본 메르젠이 각자 결혼 후에도 같이 지내다가 형이 죽자 그 아들들이 작은 아버지 도본 메르젠을 일가로 여기지도 않고, 깔보아 떼어버리고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때 아우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었다.⁹⁾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원수(2004: 25, 주10)의 언급처럼 유목사회에서 누구를 거친 초원에 떼어버리고 이동한다는 것이 농경 정주 사회에서 누구를 고향에서 내쫓는 일보다 가혹한 처사라는 면과 함께 장성한 형제가 혼인 후에도 같이 유목을 하고 지낸 점, 장성한 조카들이 자기들끼리 유목 이동을 하였다든 점이다. 이와 같이 부모형제와 같이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함께 유목하는 것이 몽골 유목 조직의 원형이었을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 | | | | | | | | | | | | | | | | | | | | |
|-------------------------|---------------------------|-------------------------|-----------------------|-----------------------------------|-------------------------|---------------------------------|--------------------------|-----------------------------------|------------------------------|-------------|--------------------------------|-------------------------|-----------------------------------|-------------------------------|--------------------------------------|---------------------------------|-------------------------------------|----------------------------|----------------------------------|----------------------------------|
| <p>去了一箇甘草黃馬他兄弟別古台騎着</p> | <p>一日帖木真的慘白騎馬八疋在家被賊劫將</p> | <p>失兒哈 阿駙塔泥 忽迭周 哈兒罷</p> | <p>慘白 騎馬等行 趕着 出來了</p> | <p>也勤 擺亦 忽 容額 恰 禿 朵 禿 周 幹 羅 阿</p> | <p>焉甚 立 說了 一同 走馬看 了</p> | <p>李幹兒出 嗚語列論 那可 徹速 客延 亦 列 額</p> | <p>人名 說 做伴 麼道 來了 我這裏</p> | <p>必失兒哈 阿駙壇 帖迭備 忽迭周 哈兒速 孩 客額罷</p> | <p>我 慘白 騎馬等 那的看 趕着 出來 說了</p> | <p>元秘史二</p> | <p>不者罷 帖木真 嗚語列論 那可兒赤 額迭 擺宜</p> | <p>見了 人名 說 伴當 你 這 立</p> | <p>帖別 也客古哩額訥乞札阿剌 額別速速 擺亦周 不恆宜</p> | <p>那 大 園子的 的 違行 抄單 立着 有的行</p> | <p>你利古哩延 亦兒堅 途兒 古兒罷 失兒哈 阿駙壇 乃蠻 抹</p> | <p>一 園子 百姓行 列了 慘白 騎馬等 八箇 馬母</p> | <p>抹吉周 忽兒班 豁那周 兀迭失 納 忽不埋塔申 不恆宜兒</p> | <p>猶着 三 宿着 晚夕 兩 拍着 有的時</p> | <p>捏別禿備 容額額 失兒哈 阿駙塔訥 抹埋牙兒 亦訥</p> | <p>名字有的有 說了 慘白 騎馬 等的 跟蹤 依着他的</p> |
|-------------------------|---------------------------|-------------------------|-----------------------|-----------------------------------|-------------------------|---------------------------------|--------------------------|-----------------------------------|------------------------------|-------------|--------------------------------|-------------------------|-----------------------------------|-------------------------------|--------------------------------------|---------------------------------|-------------------------------------|----------------------------|----------------------------------|----------------------------------|

<그림 5> 『몽골비사』 제2권 30쪽 3째칸에 古^{ᠭᠦ}里延(園子)이라는 표기가 보인다. 우리의 쿠리엔(küriyen)이다. 일부 연구자는 이를 güriyen으로 전사하였으나 현대 몽골 어계 방언들에서 실현되는 양상으로 보아 küriyen이 더 합리적이다. (사진: 일본 東北大學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栗林均 교수 제공)

9) 『몽골비사』 3~11절. 유원수(2004: 23-25) 등 참조.

『몽골비사』 90절 등에는 유목민들이 “쿠리엔”(küriyen)이라는 대규모 단위로 유목하는 모습이 나온다.¹⁰⁾ 쿠리엔은 형제나 지친을 훨씬 넘는 씨족(oboynu ‘공통의 남자조상을 가진 이들’)~지파(yasutu ‘같은 뼈를 가진 이들’) 단위의 유목 조직이었다. 공통의 남자 조상을 가진 이들과 그 배우자들, 그리고 그들의 예속민들까지 수백을 넘는 사람들이 함께 유목을 하자면 생산성이 매우 낮고 불편한 점도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지만 씨족 부족 간 약탈, 보복전에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도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칭기스 칸(1162~1227)의 몽골 통일(1206)로 치안이 확립된 몽골 땅에서는 유목 조직도 다시 소규모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청조의 지배를 받던 시절(내몽고, 1636~1911, 외몽고, 1691~1911), 그리고 복드 한 정권(1912~1924) 시절까지 몽골 사회에서는 많은 평민들이 칭기스 칸과 남자 형제들의 남자 후손들과¹¹⁾ 불교 사원, 그리고 부유한 평민의 가축을 돌보는 소작농~머슴과 유사한 처지에 있었다. 사회주의 시절이던 195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네그델”(nigedül, negdel)이라는 집단목장 체제로 가축을 길렀다.¹²⁾ 1992년부터 재산의 사유화가

10) 유원수(2004: 57-59) 등 참조. 쿠리엔에 대한 군사~방어적 측면에서의 중세 문헌의 기술은 김호동(2003: 142-145) 참조.

11) 보르지긴씨 키야드파 남성들로 타이지(tayji, 台吉)라고 불렸으며 최소 4호(4등 타이지)에서 최대 15호(1등 타이지)까지 이들을 받드는 합질가(qamjilγa, 隨丁)가 보장 되었으며 작위를 받으면 최대 60호로 늘어났다. 오용빌렉 외(1993: 297-312). 그러나 힘 있는 봉건영주들은 법이 보장하는 범위를 넘어 합질가를 소유하여 1841년에 225호의 합질가를 거느리던 세첸 한은 1855년에는 1354호의 합질가를 거느리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몽골인민공화국 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1968: 175-186). 작위는 타이지만 받을 수 있었고, 통치 영주나 고위보좌관이 되는 것도 타이지에만 가능하였고, 심지어 고위 라마들도 대부분 타이지 가운데서 나왔으니 이 시기의 몽골사회를 귀족인 타이지와 평민인 타이지 아닌 사람들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다.

12) 류기선(1993: 100)은 사회주의 시절의 유목 조직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시기 목민은 국영농장, 농목 협동조합(우리의 네그델), 목축업 지원 기업체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하는데 목축업 분야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농목 협동조합이라고 하였다.

시작되고 유목 조직도 다시 호트아일의 규모가 되었고, 여기저기서 가축 수가 1,000마리가 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사회주의 시절 보통 2천만 마리 정도였던 몽골국 전체의 가축 수가 최근에는 4천만 마리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각종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 가축: 가변성과 취약요소

몽골어에 “용사도 총알 한 방에 (목숨을 잃을 수 있고), 부자도 재해(조드) 한번에 (모든 가축=재산을 다 잃을 수 있다)¹³⁾”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의 목적은 勇力이나 재산의 덧없음을 가르치는 것이겠지만 가축은 실로 많은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매우 취약한 존재이고, 유목민의 경제도 매우 취약한 기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한다. 봄에 눈이 많이 내리고, 녹았다 얼어붙어 오래도록 다시 녹지 않아 짐승들이 풀을 먹지 못해 쓰러지는 (차강) 조드(할하몽골어 (tsagaan) zud)가 한번 일어나면 실제로 한 숨(군) 전체의 가축이 전부 쓰러지는 일도 있다. 구제역 같은 돌림병이 한번 들어도 마찬가지다. 요즘처럼 교통 통신이 발달하여 중앙과 지방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¹⁴⁾ 수의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이러하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위협은 더욱 컸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하겠다. 유목은 이와 같이 취약한 것이 당연한 숨 탄 짐승을 돌보는 일이고, 그것은 유목민이 자신과 부모처자를 부양할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13) Baatar hün neg sumand, bayan hun neg zudand. 볼드 외(2008: 190-191).

14) 예를 들어, 2012년 4월 11일자 문차메 신문에는 눈이 많이 내려 새끼 가축이 죽고, 모축들이 유산을 하는 등 봄 나기가 어려워진 아르항가이, 바얀홍고르, 바양-울기, 볼강, 고비-알타이, 우브르항가이, 투브, 오브스 아이막에 정부에서 39만 톤의 건조, 1,700톤 가까운 사료를 무상 혹은 염가로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치백 기자의 기사가 나온다.



<그림 6> 호트 안에서 어른들이 양털을 깎는다. 양털 깎기는 여름철에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 2006년 6월 볼강 아이막. ASK REAL 아카이브.

몽골 유목민이 기르는 가축은 염소와 양이 가장 많고 다음은 소, 말 순이며 낙타가 가장 적다. 이 다섯 가축을 5종 가축(*tawan hoshuu mal*)이라고 하는데 몽골문어(=내몽고, *tabun qosıǵu mal*), 부리아트몽골어(*taban hushuu mal*), 칼미크몽골어(*tawn züsn mal*)에도 같거나 유사한 용어가 있고 용어의 내용도 같다. 넓은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 몽골계 민족들의 언어에서 용어가 같은 것은 5종 가축이 목축의 주 대상으로 낙착된 것이 꽤 이른 시기였음을 뜻할 것이다.

할하몽골어의 속담처럼 “3살짜리 수송아지의 뿔이 얼어 부러질 정도의 한 겨울 추위¹⁵⁾”를 견디며 자라는 5종 가축은 사람의 보호를 받는 대신 힘, 젖, 고기, 내장, 피, 털, 가죽, 뼈까지 모든 것을 대가로 내놓는다. 가죽 가운데는 제 새끼에게 젖을 물리지 않는 어미,¹⁶⁾ 사람을 태우거나

15) *Gunyn ewer hugaram gurwan yesiin hüiten*. 볼드 외(2008: 548).

수레 끄는 일을 거부하는 소와 말과 낙타, 새끼가 들어서지 않거나 습관적으로 유산하는 암컷, 봄에 태어나는 다른 놈들과는 달리 겨울 턱밑에 태어나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험한 겨울을 나야 하는 새끼 등 목민의 애를 태우는 문제 가축들도 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몽골국의 염소의 수는 보통 양의 1/3 정도였으나 지금은 수에서 양을 능가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유목민이 자기가 기를 가축의 종류와 수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고, 몽골의 문호가 개방되고, 중국에서 염소 캐시미어를 관찮은 값에 대량으로 꾸준히 수입하자 유목민들이 염소를 잡지 않게 되고, 따라서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¹⁷⁾ 몽골국 식량, 농목, 경공업부(2011, 2012c) 자료에 의하면 낙타의 경우 1954년에 90만 마리에 육박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아래와 같이 26~28만 사이로 줄어들었는데 낙타의 힘을 대신할 것, 즉 각종 차량이 날로 널리 보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부서의 2009년과 2010년 자료를 보면 불과 1년 사이에 가축 수가 4분의 1로 줄어든 것도 볼 수 있다. 목축과 수의학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발달하고 정부의 대처가 신속한 오늘날에도 유목은 매우 “위험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하겠다.

16) 다른 어미들의 젖을 훔쳐 빼는 약빠른 새끼들도 있다. 할하몽골어로는 고브샤(guwshaa)라고 부른다. 볼드 외(2008: 537-538).

17) 특히 나이 들어 덩치가 커질수록 캐시미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벌써 식용으로 도살되었을 늙은 수 염소들을 잡지 않는데, 덩치가 큰 염소는 풀도 더 많이 먹어야 하고, 이것이 생태 환경의 파괴로 이어지고, 사막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캐시미어 가격의 변동과 관련된 정보와 함께 유원수(2009a: 197-198).

<표 1> 5종 가축 통계

| 종류 연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염소 | 18,347,800 | 19,969,400 | 19,651,500 | 13,528,500 | 15,934,600 |
| 양 | 16,990,100 | 18,362,300 | 19,274,700 | 14,050,800 | 15,668,500 |
| 소 | 2,425,800 | 2,503,400 | 2,599,300 | 2,123,700 | 2,339,700 |
| 말 | 2,239,500 | 2,186,500 | 2,221,300 | 1,860,600 | 2,112,900 |
| 낙타 | 260,600 | 266,400 | 277,100 | 265,300 | 280,100 |
| 총계 | 40,263,800 | 43,288,500 | 4,4023,900 | 31,828,900 | 36,300,000 |

몽골 유목민들이 기르는 5종 가축의 품종은 다양하다. 몽골국 식량, 농목, 경공업부(2012b)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몽골 가축의 특징」이라는 난에 대표적인 품종으로 거론되는 것만 해도 말 3종, 소 9종(몽골 재래종 4, 수입개량종 5), 양 20종, 염소 10종이다. 오늘날 정부와 민간의 축산 전문가들이 가축의 품종 개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몽골 전통의 품종 개량~유지법은 거세를 통한 것이었다. 이 방법은 1950년대까지도 몽골에서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고, 지금도 압도적으로 중요한 방법이다. 즉 목민이 자기의 수컷 가축 가운데 씨가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소수만 남기고 나머지 수컷은 成畜이 될 무렵 거세를 하는 것이다. 씨가축으로 남은 수컷은 암컷, 어린 것, 거세한 수컷으로 이루어진 제 무리 위에 군림하면서, 신통하게도, 늑대 등으로부터 무리를 보호한다.

<표 2> 가족의 나이별, 성별 명칭(일부)

| 나이, 성별 | 양 | 염소 | 소 | 말 | 낙타 |
|---------|--------------------|---------------------|-----------------|----------------------|-----------------|
| 총칭 | hon' | yamaa | üher | aduu | temee |
| 씨 수컷 | huts | uhna | buh | azarga (4살 이상) | buur (5살 이상) |
| 거세한 수컷 | ireg (3살 이상) | serh (3살 이상) | shar (6살 이상) | agt, mor' (4살 이상) | at (5살 이상) |
| 암컷 | em hon' (3살 이상) | em yamaa (3살 이상) | ünee (6살 이상) | güü (4살 이상) | inge (5살 이상) |
| 0~1세 | hurga | ishig | tugal | unaga | botgo |
| 1~2세 | tölög | borlong | byaruu | daaga | torom |
| 2~3세 총칭 | hyazaalang hon' | hyazaalang yamaa | shüdleng | shüdleng | built |
| 2~3세 암컷 | zusag hon' | zusag yamaa | gunj | baidas | ohin built |
| 2~3세 수컷 | hyazaalang hon' | hyazaalang yamaa | guna | üree | built |

2.3. 목영지(牧營地): 유목의 물리적 범위와 유목민의 정서

자연에서 자라는 풀을 가축에게 뜯기는 몽골의 목축에서 계절 이동은 이듬해에 같은 곳에서 풀이 다시 자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즉 가축들이 풀뿌리까지 먹어치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정주사회에서 살아온 우리는 몽골, 초원, 또는 유목(游牧, negüdel-ün mal aju aqui, nüüdülin mal aj ahui)이라는 말에서 정처 없는 방랑 또는 평생 떠도는 삶 따위를 연상하기 쉬우나 사실은 몽골인의 유목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인 노탁(nutuy, nutag, nyutag, nutg) 안에서 봄살이

티(qabur- jīya, hawarjaa, habarjaa, hawrjng), 여름살이 티(jusalang, zuslang, zuhalang, zuslng), 가을살이 티(namurjīya, namarjaa, namarjaa, namrzng), 겨울살이 티(ebüljīye, öwöljöö, übeljöö, üwłzng)로 옮겨 다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용어가 몽골의 할하몽골어는 물론 내몽고의 여러 방언, 부리아트몽골어, 칼미크몽골어에도 두루 통용되는 것은 이러한 방식의 목축이 아주 이른 시기부터 몽골계 유목민들 사이에 보급되어 있었던 것을 뜻한다 하겠다.

물론 연중 이동의 구체적인 회수와 거리, 범위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 같은 지역에서도 기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유목민의 관념에는 위와 같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중 4번 이동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구제역, 수족구병을 비롯한 가축돌립병이나 들불, 가뭄(강(조드)과 눈피해(차강) 조드)¹⁸⁾ 같은 것도 가외로 이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몽골은 전통 방식의 목축인 계절 유목이 남아 있는 유일한 곳이라 할 수 있는데, 계절이동의 물리적 범위는 최소 행정단위인 박(bag ‘면’)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의 범위를 넘을 경우 암묵적이든 공식적이든 사전 협의~동의~승인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솜(sum ‘군’)의 범위를 넘으려면 공식적인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정이 긴박하면 아이막(aimag ‘도’)의 범위도 넘을 수 있다.¹⁹⁾ 대단히 거친 셈법이지만 몽골에는 21 아이막(≒도), 329 솜(≒군), 1,655 박(≒면)이 있고, 1 솜의 평균면적이 4,200 km²라고 하므로 1 박의 평균 면적은 서울의 1.2배 정도 되는 840 km²라고 할 수 있겠다.²⁰⁾

18) 편의상 할하몽골어 형태만 제시.

19) 1994년 봄~여름까지 지속된 들불로 인해 투브 아이막 몽근모리트 솜의 일부 목민이 헨티 아이막 자르갈트항 솜으로 넘어온 적이 있었다. 그해 7월 글썬이는 자르갈트항 솜의 목민 참바씨네 호트아일에서 목을 때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르갈트항 솜에서 관내 목민들에게 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목민들도 기꺼이 양해하였다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20) 정주사회 출신 여행자의 눈에는 서울보다 넓으면 넓은 영역 안에서 계절유목은